

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 비교

이 행 자¹⁾ · 김 영 혜²⁾ · 박 남 희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존재해 온 현상임에 틀림이 없지만 다분히 개인 또는 가족의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최근 한국은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각 가정과 사회는 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하지만 2003년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Ministry of Health & Welfare & National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2003)에 의하면 2003년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2,921건으로 이는 2002년에 아동학대 사례가 2,478건이었던 데에 비하여 18%, 2001년에 비해 38%나 증가했다. 학대유형별로는 중박학대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중박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시킬 경우 방임이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학대 30.4%, 정서학대 27.1% 성학대 4.7%, 유기가 2.9%순이었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60% 이상 이었고, 11세 이하 아동이 피해아동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동은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면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고, 부모의 적절한 양육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지만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은 아동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Kim, 2002). 이러한 시기의 아동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손상 뿐 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그들의 자존감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Ahn, 2001). 특히 아동에게 가족내에서의 학습된 폭력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정내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하고 건강한 미래의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중요한 보건의료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질문지법에 의한 자가보고척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자신의 피해대 경험을 의식하고 표현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그 이유는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가족에 대한 반감을 언어화시키고 난 후 다른 가족원의 반응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죄의식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Kim, 1993).

아동의 내면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그림을 통하여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Lee & Choi, 1995). 아동의 그림은 아동 자신이 인식한 세계를 그렸다고보다 경험한 세계를 그림에 투사함으로써 무의식적인 내면을 드러낼

주요어 : 가족지각, 학대아동, 동적가족화

1) 부산대학교병원 정신과 수간호사, 2)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투고일: 2005년 4월 19일 심사완료일: 2006년 3월 11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아동은 가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가족화를 통해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 감정 등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족내에서 느끼는 정서적 갈등이나 부적응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그린 가족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된다.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KFD)는 아동이 가족을 어떻게 지각하고, 얼마나 가족과 상호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Korea Art Therapy Association, 2000), KFD는 아동의 내면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KFD에 의한 객관적인 측정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 가치 있는 투사법으로 인정되면서 KFD검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병리와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평가적 도구로서 진단평가뿐만 아니라 치료면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국외에서는 KFD검사가 다양한 방면에서 임상적 사정 자료로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Bossert & Martinson, 1990; Wakabayashi, 1994).

Cornman(1993)는 개정된 KFD를 사용하여 암환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들의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기존의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아동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가족 지각정도를 이해하려고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동적가족화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Choi, 2000), 정상 및 정신질환 청소년의 동적 가족화를 통한 부모지각에 대한 비교연구(Lee & Lee, 1999), 동적가족화에 의한 유아의 가족지각연구(Choi, 2000), 가족하위체계 진단 척도로서의 동적가족화 타당성 연구(Lee & Choi, 2002),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가족지각과 초등학교생의 자아개념연구(Lee, 2002) 등 양적인 방법을 통해 대상자들의 동적가족화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여 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KFD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적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를 분석하여 아동의 내면과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가족과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서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동적가족화도구를 이용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내면세계를 심도 있게 표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내면상태의 표현을 통해서 가족역동이 반영되는 동적가족화를 이용하여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간의 가족지각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이 가족과 어떠한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내면세계를 파악하여 학대예방 및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간호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일반적 특성 및 부모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 정도를 파악한다.
- 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영역별 동적가족화(행위, 인물특징, 역동성, 그림양식 및 상징)에 의한 가족 지각의 정도를 파악한다.

용어 정의

• 학대아동

학대아동이란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행위를 받은 아동을 말하며(Kim, 1994), 본 연구에서는 B시 일반가정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중 아동학대척도(Hong, 1998)에 의해 상위 25 퍼센타일의 점수를 받은 아동을 의미한다.

• 동적가족화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이 그린 가족의 동적화를 의미한다. 동적가족화란 가족그림에 움직임을 첨가한 일종의 투사화로(Practice and Theory of the art therapy, 2000), 한 가족구성원이 자기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무의식적 연상을 통한 감각자극의 의식적 인식과 해석(Helen, 1983)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그린 동적가족화를 통하여 가족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이며 하부영역은 인물행위, 인물특징, 역동성, 그림양식 및 상징으로 구분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지각을 부정적으로 인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에 대한 반응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 4개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576명 중 질문지 내용이나 그림이 불충분한 대상 19명을 제외한 총 557명이었으며, 557명의 아동 중에서 학대척도에 의

한 분석에서 상위 25 Percentile의 점수를 얻은 학대아동군 143명과 하위 25 percentile의 점수를 얻은 일반 아동군 150명으로 총 29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

● 학대정도

학대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의 학대정도를 파악하기 신체적 학대는 Strauss(1979), 정서적 학대는 Go(1992), 방임 학대는 아동학대국제 상임위원회(ISCAC; International Standing Committee on Child Abuse)가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Hong(199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질문지 문항은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아동에게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어난 학대받은 경험 즉 피학대 경험을 물어 '거의 없었다', '드물게 있었다(1년에 2~3회)', '가끔 있었다(1달에 2~3회)', '자주 있었다(1주일에 1~2회)'의 1점~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최저 30점에서 최고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인식하는 피학대 경험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Hong(1998)에서 Cronbach's α 는 0.67~0.8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76-0.78 이었다.

●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

본 연구에 가족지각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동적가족화는 선행연구(Myers, 1978; Burns, 1982)를 토대로 하여 행위, 인물특징, 역동성의 평가는 Burns(1982)의 채점기준을 적용하였고, 그림양식 및 상징은 Myers(1978)의 채점기준을 사용하였다. 총 5개 영역의 78개 항목으로서, 2점 척도 및 다점 척도(0점~8점)로 구성되어 있고 최저 3점에서 최고 2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각정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정도를 알아보는 도구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학과와 아동간호학 및 아동전문가 3인의 자문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03년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고, 질문지 회수율은 96.7%였다. 본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자가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의 동의를 구한 후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연구보조원 2명과 함께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옆 친구의 그림을 보지 말고 그리도록 주시시킨 다음 30~40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HB연필이나 4B연필과 지우개를 준비해서 A4용지(21x29.7) 1매를 주고 "나를 포함해서 나의 가족을 모두 그리되,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을 그려주세요. 무엇이든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자신도 그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검사과정에 있을 수 있는 질문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외 유도적인 말은 피하였다. 그림을 다 그린 후 그림 뒷면에 누구부터 먼저 그렸는지 순서를 적도록 하고, 그림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나 빠진 가족이 있는지 물어 보고 적도록 했다. 그림의 완성 후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림과 질문지를 함께 회수하였다.

채점기준은 행위, 인물특징, 역동성, 그림양식 및 상징의 5개 영역의 78개 항목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점, 해당사항이 있으면 1점으로 처리(단, 다점척도는 0점에서 8점까지 처리함)하였다. 채점절차는 연구자와 미술치료사 1명과 현재 미술치료연구 중에 있는 간호사 1명이 채점하였다. 애매모호한 그림은 채점에서 제외했고 불일치항목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재 의견 통합하였는데 '일치도(%) = 일치된 수/전체 가능한 일치수 \times 100' 계산식(Cummings, 1980)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채점일치도를 보기위해 무작위 추출한 대상자 40명을 채점한 결과 각 채점자간의 일치도는 A평가자와 B평가자의 채점자간 일치도는 92.5%, B평가자와 C평가자의 채점자간 일치도는 93.5%, A평가자와 C평가자의 채점자간의 일치도는 96.0%로 나타나 채점자간의 일치도는 수용할 수 있었다.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0.0을 이용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학대받은 정도는 Percentile로 분석하였다.
- 일반군과 학대군간 일반적 특성 및 부모관련 특성간의 차이검증은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가족지각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일반군과 학대군간의 동적 가족화 하부영역별 가족지각 정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성별은 학대군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고 일반군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0.60$, $p<.0001$). 학년별로는 4학년에서 학대군이 일반군(42.7% vs 26.7%)보다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8.30$, $p=0.02$). 학대군과 일반군에서 모두 친부모가 각각 9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기타 계부모와 편부모는 학대군이 일반군(7.7% vs 1.3%)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6.98$ $p=0.01$). 가정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한다'가 학대군에 비해 일반군이(75.5% vs 92.0%)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5.26$, $p<.0001$). 가족수는 4명이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는 중정도의 수준으로 대부분 핵가족형태의 중산층 가정이었으며, 형제순위는 학대군은 첫째가 일반군은 둘째가 더 많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부모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부모관련 특성<Table 2>에서 부부싸움 횟수는 '1년에 3~4회 한다'에서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았고, '전혀 하지 않음'에서는 일반군이 학대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

부부싸움 횟수에 있어서 학대군과 일반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6.14$, $p<.0001$).

아버지와 관련된 특성에서 연령분포는 40세~49세가 학대군과 일반군 모두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가 학대군과 일반군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고, 종교에서는 학대군과 일반군 모두 불교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는 일반군이 학대군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직업이 없는 경우는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다소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5.88$ $p=0.02$). 음주습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9.63$ $p=0.05$).

어머니와 관련된 특성<Table 2>에서 연령분포는 30세~39세가 학대군과 일반군에서 모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력에 있어서는 학대군은 대졸이상이 일반군에서는 고졸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종교에서는 학대군과 일반군 모두 불교가 가장 많았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학대군과 일반군 모두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음주습관에서 '전혀 안마심'이 학대군과 일반군 모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 정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3)

Characteristics	Category	Child abuse group (n=143)	General group (n=150)	χ^2	p
		n(%)	n(%)		
Sex	male	91(63.6)	67(44.7)	10.60	.000
	female	52(36.4)	83(55.3)		
Class	4	61(42.7)	40(26.7)	8.30	0.02
	5	38(26.6)	50(33.3)		
	6	44(30.8)	60(40.0)		
Family number	3 below	12(8.4)	11(7.3)	0.34	0.85
	4	93(65.0)	95(63.3)		
	5 above	38(26.6)	44(29.3)		
Family type	Nuclear family	118(82.5)	128(85.3)	0.43	0.51
	Extended family	25(17.5)	22(14.7)		
Birth order	first	62(43.4)	51(34.0)	5.90	0.12
	second	58(40.6)	72(48.0)		
	third above	7(4.9)	15(10.0)		
	alone	16(11.2)	12(8.0)		
Parent type	Biological parents	132(92.3)	148(98.7)	6.98	0.01
	Etc	11(7.7)	2(1.3)		
Economic status	Upper	24(16.8)	24(16.0)	1.23	0.53
	Middle	100(69.9)	112(74.7)		
	Lower	19(13.3)	14(9.3)		
Home satisfaction	Satisfaction	108(75.5)	138(92.0)	15.26	.000
	Moderate	34(23.8)	11(7.3)		
	Dissatisfaction	1(0.7)	1(0.7)		

〈Table 2〉 Parents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3)

Characteristics		Category	Child abuse group (n=143)	General group (n=150)	χ^2	p
			n(%)	n(%)		
Marital quarrel (frequency)		Daily	2(1.4)	1(0.7)	16.14	.000***
		1~2/week	14(9.8)	4(2.7)		
		1~2/month	20(14.0)	14(9.3)		
		3~4/year	65(45.5)	57(38.0)		
		None	42(29.4)	74(49.3)		
Father	Age (years)	30~39	45(31.5)	37(24.7)	3.25	0.20
		40~49	90(62.9)	108(72.0)		
		50 above	6(4.2)	3(2.0)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13(9.1)	12(8.0)	0.63	0.73
		High school	47(32.9)	57(38.0)		
		More than college	68(47.6)	69(46.0)		
	Religion	Buddhism	66(46.5)	76(51.0)	2.94	0.57
		Christianity	22(15.5)	15(10.1)		
		Catholic	10(7.0)	7(4.7)		
		None	41(28.9)	47(31.5)		
	Job	Etc	3(2.1)	4(2.7)	5.88	0.02**
		Yes	35(94.4)	147(98.0)		
	Alcohol	No	8(5.6)	1(0.7)	9.63	0.05*
		None.	25(17.5)	26(17.3)		
		Almost not drink.	19(13.3)	36(24.0)		
		Occasionally drink.	51(35.7)	58(38.7)		
		Frequently drink	34(23.8)	23(15.3)		
		Daily.	12(8.4)	6(4.0)		
Mother	Age (years)	30~39	84(58.7)	85(56.7)	2.26	0.52
		40~49	54(37.8)	61(40.7)		
		50 above	1(0.7)	1(0.7)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15(10.5)	13(8.7)	5.02	0.08
		High school	48(33.6)	76(50.7)		
		More than college	55(38.5)	50(33.3)		
	Religion	Buddism	66(47.5)	83(55.7)	3.82	0.43
		Christianity	30(21.6)	22(14.8)		
		Catholic	12(8.6)	9(6.0)		
		None	27(19.4)	32(21.5)		
	Job	Etc	4(2.9)	3(2.0)	2.01	0.16
		Yes	76(53.1)	92(61.3)		
	Alcohol	No	67(46.9)	58(38.7)	7.08	0.07
		None.	55(38.5)	70(46.7)		
		Almost not drink.	37(25.9)	50(33.3)		
		Occasionally drink.	40(28.0)	28(18.7)		
		Frequently drink	4(2.8)	1(0.7)		

*p<.05, **p<.01, ***p<.001

동적가족화의 영역별 가족지각 반응은 <Table 3>과 같다. 행위영역에서는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가족지각 점수를 보였고(66.20±11.13 vs 42.21±13.1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15.14, p<.0001). 인물특징 영역에서도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여(26.67±8.10 vs 23.87±7.5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t=-2.74, p=0.01). 양

식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t=-4.03, p<.0001)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더 높은 점수(1.27±1.42 vs 0.60±1.05)를 보였다. 상징영역에서도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0.49±0.64 vs 0.35±0.50),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12, p=0.04). 그러나 역동성 영역은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가족지각 평균점수는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Family perception in Kinetic Family Drawing(KFD)

(N=293)

Variables	Child abuse group (n=143)	General group (n=150)	t	p
	M±SD	M±SD		
Actions	66.20±11.13	42.21±13.15	-15.14	.000***
Figure characteristics	26.67± 8.10	23.87± 7.51	-2.74	0.01**
Dynamics	11.08± 4.19	10.10± 4.09	-1.80	0.07
Styles	1.27± 1.42	0.60± 1.05	-4.03	.000***
Symbols	0.49± 0.64	0.35± 0.50	-2.12	0.04*
Total	105.71±16.09	77.12±16.24	-13.44	.000***

*p<.05, **p<.01, ***p<.001

동적가족화에 의한 영역별 항목에 대한 가족지각 반응

동적가족화의 영역별 가족지각 반응은 행위영역, 인물특징 영역, 역동성 영역, 양식영역 및 상징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행위영역에서의 항목별 가족지각 반응

행위영역에서 자기상, 아버지상, 어머니상의 행위수준에 대한 활동성, 의사소통, 협력, 자기에, 양육, 긴장의 항목별 가족지각 반응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기의 활동성은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 여(5.13±1.83 vs 3.11±1.00)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11.65, p<.0001), 아버지의 활동성은 학대군이 더 점수가 높아 (5.36±1.70 vs 3.25±1.29)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11.33,

p<.0001). 어머니의 활동성도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5.68±1.52 vs 3.21±1.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4.91, p<.0001).

자기의 의사소통은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점수로 나타나(3.88±1.53 vs 2.13±0.70)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12.55, p<.0001), 아버지의 의사소통도 학대군이 더 높은 점수로(4.08±1.48 vs 2.17±0.9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t=-12.45, p<.0001), 어머니의 의사소통 역시 학대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4.28±1.35 vs 2.18±0.8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14.60, p<.0001).

협력적인 자기는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 여(2.29±1.39 vs 1.10±0.75) 통계적으로 유의했고(t=-9.03, p<.0001), 협력적인 아버지도 학대군이 더 높은 점수로(2.40±1.41 vs 1.10±0.8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9.09, p<.0001), 협력적인 어머니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대군이

〈Table 4〉 Family perception in actions dimension

(N=293)

Variables	Elements	Child abuse group (n=143)	General group (n=150)	t	P
		M±SD	M±SD		
Activity	Self	5.13±1.83	3.11±1.00	-11.65	.000***
	Dad	5.36±1.70	3.25±1.29	-11.33	.000***
	Mom	5.68±1.52	3.21±1.01	-14.91	.000***
Communication	Self	3.88±1.53	2.13±0.70	-12.55	.000***
	Dad	4.08±1.48	2.17±0.94	-12.45	.000***
	Mom	4.28±1.35	2.18±0.81	-14.60	.000***
Cooperation	Self	2.29±1.39	1.10±0.75	- 9.03	.000***
	Dad	2.40±1.41	1.10±0.81	- 9.09	.000***
	Mom	2.40±1.45	1.07±0.84	- 8.70	.000***
Narcissism	Self	4.94±0.23	3.19±1.61	-13.25	.000***
	Dad	4.94±0.39	3.31±1.61	-11.52	.000***
	Mom	4.95±0.40	3.27±1.60	-11.99	.000***
Nutrition	Self	5.42±2.67	4.51±2.86	- 2.83	0.01**
	Dad	5.46±2.55	4.40±2.90	- 3.18	.000***
	Mom	5.04±2.76	4.23±2.83	- 2.29	0.02*
Tension	Self	0.05±0.30	0.07±0.08	- 1.64	0.10
	Dad	0.03±0.17	0.02±0.12	- 0.92	0.36
	Mom	0.03±0.16	-	-	-

*p<.05, **p<.01,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t=-8.70$, $p<.0001$) 높은 점수(2.40 ± 1.45 vs 1.07 ± 0.84)를 보였다.

자기에 항목에서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반군에 비해 학대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p<.0001$, $p<.0001$).

양육적인 자기는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5.42 ± 2.67 vs 4.51 ± 2.86) 통계적으로 유의했고($t=-2.83$, $p=0.01$), 양육적인 아버지에서도 학대군이 더 높은 점수로(5.46 ± 2.55 vs 4.40 ± 2.90)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t=-3.18$, $p<.0001$), 또한 양육적인 어머니에서도 학대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t=-2.29$, $p=0.02$) 높은 점수(5.04 ± 2.76 vs 4.23 ± 2.83)를 보였다. 긴장항목에서는 자기, 아버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인물특징 영역의 항목별 가족지각 반응

인물특징 영역에서는 인물상의 팔길이, 신체의 완성도, 눈의 완성도, 얼굴의 완성도, 얼굴표정, 발의 크기, 인물상의 생략 및 치아표현별 가족지각 반응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자신의 신체완성도에서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0.49 ± 0.79 vs 0.29 ± 0.66)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2.37$,

$p=0.02$). 아버지의 신체완성도에서는 학대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0.61 ± 0.94 vs 0.35 ± 0.70)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2.53$, $p=0.01$). 또한 어머니의 신체완성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대군이 통계적으로 유의($t=-2.89$, $p<.0001$)하게 더 높은 점수(0.68 ± 0.90 vs 0.38 ± 0.72)를 보였다. 자신, 아버지 및 어머니 얼굴표정에서는 학대군이 모두 더 높은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1$, $p<.0001$, $p<.0001$). 어머니상의 생략에서 학대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t=-3.67$, $p<.0001$) 더 높은 점수(0.20 ± 0.40 vs 0.06 ± 0.24)를 보였다. 그 외 어머니의 눈의 완성도, 인물상의 팔길이, 얼굴의 완성도, 발의 크기 및 치아 표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역동성 영역에서의 항목별 가족지각 반응

역동성 영역은 인물상의 우월성, 인물상간의 경계, 인물상의 방향에 따라 가족지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Table 6>과 같다. 자기의 우월성은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3.13 ± 1.20 vs 2.81 ± 1.13)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2.29$, $p=0.02$). 인물상의 우월성에서 아버지와 인물상간의 경계와 인물상의 방향별 가족지각 반응은 인물상간의 경계에서는 자신과 아버지 항목이, 인물상의 방향에서는 자신,

<Table 5> Family perception in Figures characteristics dimension

(N=293)

Variables	Elements	Child abuse group (n=143)	General group (n=150)	t	p
		M \pm SD	M \pm SD		
Arm	Self	3.02 \pm 1.15	3.08 \pm 1.08	0.45	0.65
	Dad	3.06 \pm 1.13	3.07 \pm 1.09	0.07	0.94
	Mom	3.18 \pm 1.11	3.10 \pm 1.05	-0.63	0.53
Body	Self	0.49 \pm 0.79	0.29 \pm 0.66	-2.37	0.02**
	Dad	0.60 \pm 0.94	0.35 \pm 0.70	-2.53	0.01**
	Mom	0.68 \pm 0.90	0.38 \pm 0.72	-2.89	.000***
Eye	Self	0.85 \pm 0.64	0.76 \pm 0.65	-1.24	0.22
	Dad	0.89 \pm 0.61	0.88 \pm 0.70	-0.16	0.87
	Mom	0.90 \pm 0.61	0.74 \pm 0.67	-1.98	0.05*
Face	Self	0.83 \pm 1.03	0.67 \pm 1.01	-1.33	0.18
	Dad	0.77 \pm 1.03	0.85 \pm 1.15	0.57	0.57
	Mom	0.73 \pm 1.05	0.71 \pm 1.05	-0.14	0.89
Facial expression	Self	1.45 \pm 0.74	1.06 \pm 0.69	-4.67	.000***
	Dad	1.56 \pm 0.70	1.14 \pm 0.68	-4.90	.000***
	Mom	1.55 \pm 0.69	1.08 \pm 0.70	-5.42	.000***
Feet	Self	1.91 \pm 1.29	1.84 \pm 1.19	-0.48	0.63
	Dad	2.06 \pm 1.33	1.86 \pm 1.25	-1.27	0.21
	Mom	2.18 \pm 1.36	1.99 \pm 1.16	-1.14	0.27
Omission	Self	-	-	-	-
	Dad	0.11 \pm 0.32	0.08 \pm 0.27	-0.93	0.36
	Mom	0.20 \pm 0.40	0.06 \pm 0.24	-3.67	.000***
	All parents	0.06 \pm 0.23	0.05 \pm 0.21	-0.36	0.72
Teeth	Self	-	-	-	-
	Dad	0.08 \pm 0.09	0.07 \pm 0.09	-0.06	0.95
	Mom	0.09 \pm 0.09	0.07 \pm 0.08	-0.15	0.88

* $p<.05$, ** $p<.01$, *** $p<.001$

〈Table 6〉 Family perception in dynamics dimension

(N=293)

Variables	Elements	Child abuse group (n=143)	General group (n=150)	t	p
		M±SD	M±SD		
Superiority	Self	3.13±1.20	2.81±1.13	-2.29	0.02*
	Dad	2.83±1.37	2.60±1.29	-1.43	0.16
	Mom	2.96±1.32	2.63±1.25	-2.01	0.05*
Barrier	Self and Dad	0.15±0.36	0.09±0.28	-1.57	0.12
	Mom and Dad	0.16±0.37	0.11±0.31	-1.29	0.20
	Self and Mom	0.12±0.33	0.12±0.33	-0.05	0.96
Direction	Self	0.66±0.65	0.57±0.69	-1.16	0.25
	Dad	0.57±0.67	0.58±0.75	0.06	0.96
	Mom	0.55±0.67	0.47±0.67	-1.00	0.32

*p<.05, **p<.01, ***p<.001

아버지, 어머니 항목 모두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우월성에서도 학대군이 더 높은 점수(2.96±1.32 vs 2.63±1.25)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양식영역에서의 가족지각 반응

양식영역에 있어서 가족지각의 반응점수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양식영역에서 하부의 선이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0.14±0.35 vs 0.07±0.25)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2.06, p=0.04). 인물하선과 상부의 선 모두에서 학대군이 점수가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p=0.02). '가장자리에 나타난 인물상'도 학대군이

통계적으로 유의(t=-3.86, p<.0001)하게 점수(0.15±0.36 vs 0.03±0.16)가 더 높았다. 선구분, 자기상의 포위, 아버지상의 포위, 어머니상의 포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상징영역에서의 가족지각 반응

상징영역은 4개 힘의 영역별로 가족지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힘의 영역 1에서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0.22±0.42 vs 0.13±0.34)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t=-2.02, p=0.04), 힘의 영역 2, 4의 경우에는 일반군보다 학대군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힘의 영역 3은 두 군의 평균이 같게 나타났다.

〈Table 7〉 Family perception in styles dimension

(N=293)

Variables	Child abuse group (n=143)	General group (n=150)	t	p
	M±SD	M±SD		
Compartmentalization	0.11±0.32	0.05±0.23	-1.82	0.07
Lining bottom	0.14±0.35	0.07±0.25	-2.06	0.04*
Underlining individuals	0.11±0.32	0.03±0.18	-2.60	0.01**
Lining top	0.09±0.29	0.03±0.16	-2.34	0.028
Self at encapsulation	0.18±0.39	0.14±0.35	-0.97	0.33
Dad at encapsulation	0.20±0.40	0.12±0.33	-1.63	0.10
Mom at encapsulation	0.22±0.42	0.13±0.33	-1.91	0.06
Edged placement	0.15±0.36	0.03±0.16	-3.86	.000***

*p<.05, **p<.01, ***p<.001

〈Table 8〉 Perception family in symbols dimension

(N=293)

Variables	Child abuse group (n=143)	General group (n=150)	t	p
	M±SD	M±SD		
Force field 1	0.22±0.42	0.13±0.34	-2.02	0.04*
Force field 2	0.15±0.36	0.09±0.29	-1.57	0.12
Force field 3	0.10±0.31	0.10±0.30	-0.14	0.89
Force field 4	0.07±0.08	0.02±0.14	0.96	0.34

*p<.05, **p<.01, ***p<.001

논 의

본 연구는 동적가족화를 통해 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 지각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연구로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지각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 중 학대군의 경우 남자가 63.6%로 일반군 44.7%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학동기의 여아는 남아보다 더 유순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남아가 많다는 Hong(1998)의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학년별에서는 학대군의 4학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03)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10~11세의 4학년 아동의 경우 아직 체격이 왜소하여 부모에게 저항할 힘이 없는 반면에 매우 산만하여 부모의 주의를 요구하며, 또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관련 특성으로는 부부싸움횟수가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45.5% vs 38.0%) 높게 나타났고, 직업이 없는 경우는 학대군이 일반군(5.6% vs 0.7%)에 비해 다소 높았고, 음주습관에서 '자주 마심'의 경우는 학대군이 일반군(23.8% vs 15.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학대군 아동의 부모 특성은 부부싸움의 횟수가 많고, 아버지의 직업이 없으며, 아버지가 자주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Han(2003)에서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우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보다 아동학대하는 경우가 더 잦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 볼 때,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 부부불화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싫어지고 결혼생활을 후회하게 되면서 결국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걸림돌로 여기게 되어 힘없는 자녀를 속죄양으로 삼고 불만을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로 표출한 가능성이 커지게 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Ji(2001)와 Shultz(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음주는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술을 자주 마시는 부모들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므로 아동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체학대와 아버지의 실직간에 유의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 Adler-Baeder(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적가족화에 의한 하위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동적가족화를 통한 가족지각반응에 대한 행위영역에서는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행위영역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드문 실정이나 Lee와 Lee(1999)의 연구에서 정상청소년과 정신질환 청소년간의 가족지각에 있어 비교한 결과 정신질환 청소년이 더 부정적으로 가족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행위영역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자신과 부모를 비활동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활동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고, 역할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학대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활동성이 일반군에 비해 저하되어 있는데 이는 올바른 아버지상 혹은 어머니상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모가 정상적인 적응을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거나 혹은 그들의 자녀에게 올바른 부모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ee와 Lee(1999)의 정상청소년(N=94)과 정신질환 청소년(N=91)의 연구에서 정상청소년에 비해 정신질환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한 행위 수준에서 자기 자신이나 부모의 활동수준이나 양육적인 측면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의사소통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말에 대한 경청정도, 신체적·언어적 의사표현을 부모의 양육태도로 본 Ha와 Park(2002)의 연구에서 부모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신체적 및 언어적 의사표현을 적게 할수록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량할수록 아동학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대군의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협력성은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협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높은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아동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에는 자신의 신체나 주변적인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학대군이 높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가족원간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 자기애적으로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육면에서 자기, 아버지 및 어머니 모두에게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보살핌이 적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모상의 확립을 위한 지지와 가족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가족중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물특징 영역이란 그려진 가족원의 인물상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내면의 욕구, 심리상태, 생활경험의 표현과 환경에 대한 지각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신체부분의 생략은 특정 부분에 대한 열등감이나 그 부분에 대한 집착 또는 불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신체부위의 생략이 많아 가족에 대한 지각이 더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얼굴표정도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듯이 가족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물상의 생략은 그 인물에 대해

심리적인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있을 경우에 생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관계의 실패로 인하여 안정적인 대인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가 동적가족화에 그대로 반영되며(Choi, Lee, & Jang, 1999), 상대에 대한 회피, 갈등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Burns, 1982)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어머니상을 많이 생략하고 있어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 많음을 나타내었다.

역동성 영역이란 가족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자기의 감정과 상태, 가족에 대한 신뢰감을 나타낸다. 인물의 우월성은 인물상의 크기가 위쪽에 위치할수록 존경받는 대상을 나타내거나 혹은 권위의 대상을 나타낸다. 역동성 영역에서는 자기의 우월성에서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즉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자신을 종이의 하단에 그린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지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자기의 우월성에서 전체적으로 아버지상을 가장 위쪽에 다음은 어머니상 그리고 자기상 순으로 위치시켜 아버지를 가정 내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것은 Lee(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학대 아동군에서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식영역이란 가족의 고립이나 불안감, 회피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명확히 혹은 교묘하게 그림에 나타내는 특징을 의미한다. 인물화선은 자신 혹은 특정 구성원에 대해서 불안감이 강한 경우 그 인물상 아래에 선을 긋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성원 상호간의 불안정성을 암시한다. Burns와 Kaufman(1972)은 인물화선을 방어로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가족 전체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느끼며 가족의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양식영역에서의 가족지각 반응은 학대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가족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가 개방적이지 못하고 가정환경에 불안정감을 느끼고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상징영역이란 많은 동적가족화를 통해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사물과 거기에 공통된 임상적 의미를 예측하는 것으로 이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물체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가족간 힘의 영역 1은 주로 경쟁의식이나 질투, 공격심을 반영한 것이며, 힘의 영역 2는 애정이나 양육의 욕구, 중요성을 반영하며, 힘의 영역 3은 분노와 적개심을 반영하고, 힘의 영역 4는 우울하거나 억울한 감정을 내포한 애정욕구와 의존성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힘의 영역 1에서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학대군에서의 남자의 비율이 높았던 결과를 유추할

때 남아가 여아보다 환경에 대한 지배욕구 및 자아의식이 강하며 가족원에 대한 심리적 갈등 및 불안, 경쟁,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Shin & Kim, 2004)는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Kwon, Ahn과 Lee(1992)의 학대아동집단과 비교아동집단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학대아동집단이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정서적 불안정, 강박-우울, 과잉활동, 정신병-성문제에서는 유의하게 높았으나 공격성과 비행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힘의 영역 2, 3, 4영역 즉 중요심, 의존성,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에 대해서는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다소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학대가 일반아동과 학대받는 아동간에 심리적인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반복연구들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반적 특성 중에서 학대군과 일반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가 있었는데 가족지각의 차이를 볼 때 이러한 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점이다. 특히 학대군에서는 4학년이 많았고 일반군에서는 6학년이 많았으므로 동적가족화에서의 차이가 학년별 그림 표현 능력에 의한 차이가 아님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 학대군과 일반군의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정도를 비교해 볼 때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학대군이 가족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받는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활동성이 낮으며 서있는 자기상을 많이 그렸고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적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상을 생략한다거나 가족구성원을 가장자리에 그리는 등의 특성을 보여 전반적으로 가족지각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정신분열증 환자와 정신질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적가족화 연구(Lee & Lee, 1998) 결과와 많은 유사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동적가족화를 통해서 아동의 내면세계를 파악하게 되고 특히 학대받은 아동의 이상행동의 배후에 잠재된 개인의 내적이며 심리적인 특성을 그림을 통해 학대아동을 선별하여 사정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위험가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아동과 부모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도구가 될 수 있어 부모의 의사소통 증진 전략, 가족 상호간의 안정성 증진, 아동의 공격성이나 갈등, 회피성향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동적가족화의 활용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 4개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576명 중에서 학대아동군으로 학대척도에 의한 분석에서 상위 25%ile의 점수를 얻은 143명과 일반 아동군은 하위 25%ile의 점수를 얻은 150명으로 총 293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동적가족화는 행위, 인물특징, 역동성, 양식 및 상징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χ^2 -test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 중 남자가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많았고($\chi^2=10.60$, $p<.0001$).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4학년이 많았으며($\chi^2=8.30$, $p=0.016$), 학대군과 일반군에서 모두 친부모가 각각 9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계부모와 편부모는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많았으며($\chi^2=6.98$ $p=0.008$), 가정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한다'가 학대군에 비해 일반군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5.26$, $p<.0001$).
- 연구대상자의 부모관련 특성에서 부부싸움 횟수에서 '1년에 3~4회 한다'가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6.14$, $p<.0001$). 부모의 직업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일반군이 학대군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직업이 없는 경우는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다소 높아 직업유무에 따라 학대군과 일반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5.88$ $p=0.02$).
- 행위영역의 가족에 대한 지각정도는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15.14$, $p<.0001$). 학대군의 활동성이 일반군보다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어 아동의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보였고, 올바른 부모상을 지니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아동과 부모가 정상적인 적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인물특징 영역의 가족에 대한 지각정도는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t=-2.74$, $p=0.01$) 이러한 결과는 학대군이 가족원에 대해 부정적 감정, 불안, 갈등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적인 가족지각에 대한 심리상태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역동성 영역의 가족에 대한 지각정도는 자기의 우월성에서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t=-2.29$, $p=0.02$) 이는 학대군의 아동이 일반군에 비해 자신을 우월하게 지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권위에 대해서는 일반군에 비해 우월성을 더 강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양식영역의 가족에 대한 지각정도는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4.03$, $p<.0001$). 학대군이 일반군보다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불안감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징영역의 가족에 대한 지각정도는 힘의 영역 1에서 학대군이 일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t=-2.02$, $p=0.04$) 이는 학대군이 일반군 보다 가족원에 대한 심리적 질투 및 불안, 경쟁, 공격성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적가족화에 의하면 학대아동은 일반아동보다 가족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학대받은 아동의 부모관련특성과 부모에 대한 인지정도, 가족에 대한 갈등, 저항감, 공격성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간호중재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피학대아로 판정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동적가족화에 의한 그림특성을 분류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아동의 학대가 저학년에서 이루어지는 바 그림표현 능력이 동질한 집단간에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 동적가족화를 통한 학대아동으로 분류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가족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dler-Baeder, F. M. (1999). *Explaining physical child abuse by biological mothers, biological fathers and stepfath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Greensboro.
- Ahn, H. Y. (2001). Influence of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to physical child abuse in elementary student's parent. *J Korean Acade Comm Health Nurs*, 12(2), 482-490.
- Bossert, E., & Martinson, I. M. (1993). Kinetic family drawing-revised. a method of determining the impact of cancer on the family as perceived by the child with cancer. *Korean J Child Health Nurs*, 5, 204-213.
- Burns R. C. (1982). *Self-growth in families ; Kinetic Family Drawings(KFD)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Brunner/Mazel Inc.
- Burns, R. C., & Kaufman, S. H. (1972). *Actions, styles, and symbols in kinetic family drawing(KFD)*. New York;

- Brunner/Mazel Inc.
- Choi, M. J. (2000). *The study of perception to family of the kindergartners of the KF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 Choi, W. S., Lee, Y. S., & Jang, Y. S. (1999). A study on the sociability and characteristics of Kinetic Family Drawing(KFD) in primary childre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6(2), 39-55.
- Comman, B. J. (1993). Childhood cancer. differential effects on the family members. *Oncology Nursing Forum*, 20, 1559-1566.
- Cummings, J. A. (1980). *Evaluation of objective scoring system for kinetic family drawings*. Docto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Georgia.
- Go, S. H. (1992). *Studies on defining child abuse in Korea and th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mother and child toward the child abuse*. Docto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a, E. K., & Park, C. M. (2002). A study on the status of child abuse and its related variables-based on a primary school in Daegu.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8(4), 351-362.
- Helen, H. S. (1983). *Mosby's Medical & Nursing Dictionary*, Mosby Company.
- Hong, E. J. (1998). *A study the relation between psycho-socialological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self-image and child abuse*. Department of Childwelfar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 Ji, J. Y. (2001).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ive parent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D. Y. (1993). *Kinetic Family Drawing(KFD) Diagnosis*, Conference material of Art therapy, 2, 51-56.
- Kim, I. S. (2002). *A study on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n child abuse*.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Kyonggi.
- Kim, Y. C. (1994). *Social work approach method of abused chil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Korea Art Therapy Association (2000). *Practice and theory of the art therapy*. Daegu: Dongamoonhwa Company.
- Kwon, J. Y., Ahn, D. H., & Lee, J. S. (1992).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to the emotions and behaviors in children.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3, 73-83.
- Lee, J. M., & Lee, G. J. (1999).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rent perception of the adolescent with and without mental disorder by Kinetic Family Drawing.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6(2), 123-139.
- Lee, M. O., & Choi, W. S. (2002). The Kinetic Family Drawing(KFD) validity study as a measure of family subsystem diagnosi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9(1), 37-56.
- Lee, Y. E. (2002). *Perception to family of the KFD and self-concept of elementary*,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Chonbuk.
- Meyer, D. V. (1978). Toward an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 of the Kinetic family drawings, *J of Personality Assess*, 42, 358-365.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2000 Current report child abused.
- National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2003). 2003 Current report abused child.
- Shin, Y. H., & Kim, G. S. (2004). On how mother's nurturing attitude affects child's kinetic family drawing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11(3), 343-368.
- Shultz, S. K. (2001). *Child physical abuse : relationship of parental substance use to severity of abuse and risk for future abu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Oklahoma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13-29.
- Wakabayashi, S. (1994). Mother image of children in their figure drawings. *Psychiatric et Neurologia Japonica*, 4, 183-192.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Perception between Abus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by Kinetic Family Drawing

Lee, Haeng Ja¹⁾ · Kim, Young Hae²⁾ · Park, Nam Hee³⁾

1) Head-Nurse, Department of Psychia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3)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Purpose: The study attempted to find family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abus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by Kinetic Family Drawing. **Method:** The subjects of the study consisted of two groups, 143 abused who were in the upper 25th percentile, and 150 normal who were in the lower 25th percentile. Collected Kinetic Family

Drawings were divided into five dimensions such as actions, human figure characteristics, dynamics, styles and symbols, and they were analyzed with SPSS/WIN 10.0. **Results:** In the perception about their family in action dimension, their family in figure characteristics dimension, their family in dynamics dimensions, and their family in symbols dimension, there is a sharp contrast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Putting these results together, abused children feel lower self-esteem and feel more sense of alienation in their family than normal children do. In addition, abused children perceive their parents as negative and aggressive people.

Key words : Family perception, Child abuse, Drawing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Nam-He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33-165, Gaegeum-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32, Fax: 82-51-896-9840 E-mail: parknh@inje.ac.kr